

KOICA ODA연구 · 교육원

최신 해외연구정보 동향

2025. 3.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Electricity and Female Employment: Evidence from Tajikistan's Winter Energy Crisis

전력과 여성 고용: 타지키스탄 겨울 에너지 위기에서 얻은 근거

가전제품의 출현은 가사 노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지난 세기 동안 미국과 유럽 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Greenwood et al., 2005). 2009년 말,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외교 갈등으로 모든 국경 간 전력 거래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타지키스탄은 50년 만의 전력 부족 사태, 즉 '겨울 에너지 위기'를 겪게 되었다. 겨울철 위기 기간 동안 대부분의 가구는 일일 약 6시간 정도의 제한된 시간에만 전기를 공급받았다.

본 논문은 겨울 에너지 위기 동안 전력 공급 제한에 따른 지역별 차이를 활용하여 제한적인 전력 접근성이 노동시장에서 각 타지키스탄 남성과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추정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전력 배급이 줄어들면서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 내 무급 노동으로 전환함에 따라 여성 고용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용 감소는 노동 수요, 비자발적 실업, 노동 이주, 출산 패턴의 변화 등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주로 가사노동을 경감시키는 가전제품 사용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노동 절약형 가전제품은 여성들이 가사노동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요소이나, 불안정한 전력 공급이 이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게 만들었다.

연구 결과는 개발도상국 내 단순히 인프라 보급률 증가를 넘어,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진에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신뢰할 수 없는 전력 공급 수준은 여성 고용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고 빈곤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개발도상국 전력 인프라 개선 정책 설계 시 단순 전력 보급률 증가에 머무르지 않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 보장이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 촉진에 있어 핵심 전략임을 강조한다. 이는 또한 가전제품 보급 및 전력 접근성 개선이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임을 보여준다.

- ✓ 기관/학술지명: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 ✓ 문서종류: Article
- ✓ 발행연월: 2025.1.
- ✓ 저 자: Adrian Poignant
- ✓ 주 제: Energy
- 키 워 드: Electricity, Labor supply, Female employment
- ✓ 출 처:

<https://doi.org/10.1016/j.jdeveco.2024.103383>

※ 저작권 보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 참조



Insuring Against Disasters and Poor Institutions: Remittances as Aid and Informal Family Insurance During Typhoon Haiyan in the Philippines

재난 및 열악한 제도에 대비하는 보험: 필리핀 태풍 하이옌 발생 당시 원조 및 비공식 가족 보험 수단이었던 송금

필리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이주 디아스포라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2017년 기준 국제 이주민 규모가 약 600만 명에 달하고 국내총생산의 14.3%에 해당하는 330억 달러의 송금이 유입되어 해외 송금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또한 필리핀은 기후 취약국으로, 연간 평균 20건의 태풍 및 사이클론이 발생하며 국토의 60% 이상이 기후 재난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민의 74%가 기후 재난 취약 인구에 해당하여 재난 위험 감소 및 기후 적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국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필리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 중 하나였던 하이옌의 경로가 무작위적으로 형성된 점을 활용하여, 송금이 재난 대응 수단으로써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한 자연 실험 연구이다. 태풍 피해 지역과 비 피해 지역을 비교하기 위해 이중차분법(DID)과 사건 연구 접근법(event-study approach)을 사용하여 피해 가구로 보내진 송금의 빈도와 금액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태풍 피해 지역에서는 송금을 받을 확률이 3.9% 증가했으나 송금 수준(remittance levels)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며 특히, 송금 증가 현상은 오직 소득 3.4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 가구에서만 관찰되었다.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일수록 가족이나 친인척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에 더욱 의존함을 나타낸다. 평균적으로 거주 지역의 인프라와 제도적 환경이 개선될수록 송금 참여도가 높아지지만, 재난 발생 시에는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도 송금이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 송금이 강력하고 탄력적인 위험 대처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여 가구(households)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개별 가구를 포함한 해당 지역의 취약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 기관/학술지명: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 ✓ 문서종류: Article
- ✓ 발행연월: 2025. 2.
- ✓ 저 자: Christopher James R. Cabuay & Budy P. Resosudarmo
- ✓ 주 제: Remittance
- ✓ 키 워 드: International remittances, Typhoon, Difference-in-Differences, Insurance
- ✓ 출 처:
<https://doi.org/10.1080/00220388.2025.2453514>

※ 저작권 보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 참조



The Global Distribution of Authorship in Economics Journals

경제학 학술지 저자들의 전 세계적 분포

최근 경제학 학계 내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동안 경제학 연구에 관한 논의는 젠더, 사회경제적 요인, 인종적 과소대표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 및 서유럽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지리적 또는 글로벌 차원의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21년까지 발표된 451,029편의 경제학 및 경영학 저널 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자의 국적별 논문 게재 및 인용 동향을 분석하고 국가·지역별 경제학 연구 분포와 불균형을 평가한다.

분석 결과, 국가/지역, 학술지의 질, 전문 분야에 따라 경제학 학술지 저자의 분포와 인용 수준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서유럽 및 북유럽 국적의 저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학 연구에서 영향력을 넓혀 온 반면, 저소득 국가에 기반한 저자들의 대표성은 자신의 국가나 지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글로벌 다각화가 기대되던 국제경제학이나 개발 경제학 분야에서도 개발도상국 저자 비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대표성은 100위 이하의 학술지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한 반면, 25위 이상의 학술지에서는 거의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분석 결과, 개발도상국 저자들의 논문은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더라도 상위 학술지에 게재될 확률이 현저히 낮았다. 인용 패턴 상에서도 미국 저자들의 논문은 훨씬 더 많이 인용되는 반면, 개발도상국 저자들의 논문은 인용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연구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개발도상국 저자들이 여전히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다른 경제학자들로부터 주목을 적게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 ✓ 기관/학술지명: World Development
- ✓ 문서종류: Article
- ✓ 발행연월: 2025. 5. (online: 2025.1.)
- ✓ 저 자: Ernest Aigner et al.
- ✓ 주 제: Global Inequality
- ✓ 키 워 드: Global Economics, Unequal development, Global inequality
- ✓ 출 처:

<https://doi.org/10.1016/j.worlddev.2025.106926>

※ 저작권 보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 참조



Social and Health Disparities Associated with Healthy Brain Ageing in Brazil and in Other Latin American Countries

브라질 및 기타 라틴 아메리카 국가 내 건강한 뇌의 노화와 관련된 사회적 및 보건 격차

저자들은 브라질에서 건강한 뇌 노화(Healthy Brain Ageing)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및 보건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건강한 뇌 노화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 공중보건 분야의 우선순위로 여겨지고 있다. 건강한 뇌의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인구학적 위험 요인보다 사회적 격차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Santamaria-Garia et al., 2023). 특히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치매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국민의 75%가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의료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건 서비스 접근성 차원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불평등하다. 이에 저자들은 브라질 및 기타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대표 표본을 가지고 건강한 뇌의 노화에 대해 인지(cognition)와 기능적 능력(functional ability)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브라질에서는 인지 기능 측면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risk factors)으로 작용한 반면, 기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는 정신 건강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브라질에서 기능적 능력 측면에서는 정신 건강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중·상위 소득국인 콜롬비아 및 에콰도르와 함께 분석했을 때, 브라질에서는 정신 건강 문제가 인지 기능 저하의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신체 활동이 기능적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상위 소득국인 칠레 및 우루과이와 함께 분석했을 때는 교육이 인지 기능 저하의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정신 건강, 신체 활동, 국가 간 차이가 뒤를 이었다.

해당 연구는 브라질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건강한 뇌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국가별로 다르게 작용하며, 연령과 성별과 같은 고전적 치매 위험 요인이 보편적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자들은 건강한 뇌 노화를 위한 글로벌 보건 전략이 지역 특성 및 관련 요인의 패턴에 맞춘 맞춤형 전략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 기관/학술지명: The Lancet Global Health
- ✓ 문서종류: Article
- ✓ 발행연월: 2025. 2.
- ✓ 저 자: Lucas U Da Ros, MD et al.
- ✓ 주 제: Global Health
- ✓ 키 워 드: Healthy Brain Ageing, Social and Health Disparities, Latin America and Brazil
- ✓ 출 처: [10.1016/S2214-109X\(24\)00451-0](https://doi.org/10.1016/S2214-109X(24)00451-0)

※ 저작권 보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 참조

